



행복드림복지회 두리 E.N.G 수혜 성금 500만원 쾌척

6일 (사)행복드림복지회 두리E.N.G(대표 김선례)가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특히 행복드림복지회는 7월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에 이은 두 번째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선례 대표는 "이번 수혜로 피해를 겪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의 발전을 기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수혜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까지 생각해 주셔서 깊은 감사 드리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 받지 않는 행복한 복지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복드림복지회는 전체 구성원의 70%가 장애인과 고령자인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재활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됐다. 시기능을 구비한 CCTV·수배전반·제어장치 시스템 등 여러 특화를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100억원 이상 매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뛰어난 실적만큼이나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모범 기업으로 꾸준한 기부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를 실천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과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김종훈 군산 중앙동장, 폭염 대응 '소통행장' 호평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입 김종훈 중앙동장이 첫 현장행정으로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에 취약한 주민을 살피며 소통행장을 시작했다. 김 동장은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4개소 등 무더위쉼터를 방문하면서 냉방기의 이상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주민들에게 폭염에 대비한 행동 요령 등 안전정보도 안내했다. 지역 주민들은 "폭염 취약지역을 구석구석 방문하며,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일에도 소통하는 동장이 되어달라"고 신입동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김종훈 중앙동장은 "주민의 평안연령이 높은 동의 특성상 주변 이웃끼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며 "동장들과 함께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정읍 보건소, 하계휴가철 복무기강·건강관리 강화

정읍시 보건소는 지난 5일,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백 없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휴가 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초과근무 부담수령 근절, 청렴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휴가철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는 여름철 식중독 및 세균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종 행사·축제 시 식품위생점검반을 편성해 식중독 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의료 자원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방문진단인력을 활용해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에게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힘겨운 여름을 이겨내는 시민들에게 빈틈없는 공공보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최선을”

남원시보건소, 경로당 건강 관리 사업 추진 총력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계속되는 폭염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체조강사 등 총 8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인 '실상생생 건강교실'은 총 86개소에서 휴강 없이 연중 운영, 무더위 쉼터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체조강사 31명을 활용하여 참여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법, 응급 상황 대처교육과 함께 흥겨운 건강체조로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경로당 400개소에 대해 주 1회 이상 방문 건강 측정과 내소자의 안부확인, 폭염기간 만성질환자의 복약관리 지도 등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을 병행하는 등 어르신의 건강을 촘촘히 살피고 있다. 더불어 남원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남원의료원 응급실과 연계해 온열질환 환자 발생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8월 5일기준 사망자 없이 총10명의 환자가 발생, 시민들에게 경로당 IPTV, 마을방송을 통해 온



열질환 예방법을 집중 홍보하여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온열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여름철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부안교육지원청, 근농인재육성재단 CMS정기 후원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CMS 정기납부 후원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다. 후원에 동참한 오공무원은 "우리 지역 인재들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작은 정성이 전해져 도움을 주고 희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기선 교육장은 "지역 인재육성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는 부안군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부안교육지원청은 미래인재를 육성 위해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학력지원센터 운영과 적정규모 학교 조성, 등 부안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NH농협 고창군지부와 고창 쌀소비 증진 업무협약

고창군과 NH농협 고창군지부와 고창쌀 소비를 통한 고창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지난 5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창군청에서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이미정 NH농협 고창군지부장 김갑선 해리농협조합장, 박윤규 대성농협조합장, 김기욱 선운농협조합장 오규열 고창농협 상임이사, 김익중 흥덕농협 상임이사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창군민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식'과 저소득층 이웃돕기 쌀 기탁식, 쌀 소비촉진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고창군과 NH농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협력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전복에서 생산된 쌀 가공 제품을 적극 사용 △NH농협 고창군지부는 판매처와의 연결·배송편의 등 구입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 △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적극 전개 등 쌀소비 증대를 위해 각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정 NH농협 고창군지부장은 "계속해서 입직원 동참



아침밥 먹기 운동을 하고 앞으로 유관기관 및 학교 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창쌀 소비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직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교육지원청-고창군 교육행정실무협의회 개최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오) 고창군과 6일 2023년 교육협력 지원사업과 농촌유학 지원 등 지역교육 현안 협의의 위해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인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고창, 고창군청 인재양성과장을 비롯한 실무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글로벌 역사문화체험 연수 고도화, 스마트스쿨 운영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총 12개 교육협력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쌀 소비촉진·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협약식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는 6일 장수군청, 장수농협, 장계농협, 무진강축산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군청 앞 광장에서 '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떡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장수군청에서 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떡 나눔 행사에는 최후식 장수군수, 김준오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장, 김용준 장수농협조합장, 곽정용 장계농협조합장 송재근 무진강축산농협조합장 등 이 참석한 장수쌀로 만든 떡을 나누며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통한 장수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을 가졌다. 이후 협약식을 통해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쌀 소비촉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과 각종 행사와 모임의 기념품 간식 등에 쌀 가공제품 적극사용 등 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김준오 지부장은 "아침밥을 먹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고 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쌀 소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후식 장수군수는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개인의 건강까지 지키는 쌀 소비 및 아침밥 먹기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대강면, '찾아가는 산림치유서비스' 진행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중표)은 지난 5일, 곡성 치유의 숲에서 찾아가는 산림치유서비스 사업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산림치유서비스는 8월에서 9월 2개월 동안 총16회 진행되며, 관내 취약계층 20명을 대상으로 숲 오감체험, 맨발 걷기, 야외 족욕, 소도구 테라피 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지원한다. 권기환 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의용소방대원, 취약계층에 선봉기 40대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태열)가 6일 연이은 여름철 폭염 특보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선봉기 40대(2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 및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 활동 실천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김태열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기를 바라면서 선봉기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들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모두에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자본센터, 희망나눔 가족봉사단과 환경캠페인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과 '기후위기 대응! 환경캠페인!'을 중교등학교 방학기간 동안 무주장날(7월 28일, 8월 1일, 8월 6일) 시장을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 O X 퀴즈를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을 활용한 홍보물품도 직접 제작하고 어깨띠 착용 및 산식퀴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속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청소년들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캠페인활동에 동참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안성면 생활개선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안성면 생활개선회가 지난 6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장학금은 안성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추진한 바쁜 먹거리 판매 사업 등 기금 확보를 위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무주군 안성면 생활개선회 안옥민 회장은 "무주군 학생들 모두가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꿈을 향한 도약과 무주군 교육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는 1996년에 구성된 농업인 학습단체로 안성면 생활개선회는 6개 읍면의 한 지회로 활동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